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발행부수 유료구독률 1위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9759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음력 11월 20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주용암해수산업 육성 본격

산업적 활용 방안 모색·새로운 산업군 개발 착수
2023년 용암해수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구축 추진
용암해수 가공수 제주지역 1차 가공 기업에도 공급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청정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블루골드'인 용암해수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용암해수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산업군과 시장 개척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활용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테크노파크(JTP) 용암해수센터가 운영중인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9월 착공해 2014년 12월 조성을 완료했다.

조성면적은 19만7341㎡으로 이 중 산업시설구역 8만8319㎡(11필지), 지원시설구역 3만8386㎡(3필지), 공공시설 및 녹지구역 7만636㎡이다.

이달 현재 입주기업은 21개사로, 단지 분양기업은 오리온 등 8개사,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은 13개사이다. 지난해 기준 입주기업 매출액은 53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9%이다. 고용 인원은 212명이다.

용암해수가 제주의 새로운 '블루골드'로 떠오르면서 용암해수단지 입주 희망 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잔여 분양 부지가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JTP가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요 조사 결과 44개사 가운데 12개사가 단지 분양을 원했고, 센터 임대는 32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용암해수를 이용한 산업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지 내 활용으로 산업 활성화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염지하수 개발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JTP는 입주 수요와 경제성 검토를 통한 산업단지 확장과 용암해수센터 임대 공간확보를 통한 유망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엔 용암해수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용암해수 가공수를 단지 내 기업과 사업 영역이 무관한 제주지역 1차 가공업 기업에 공급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용암해수 인증 브랜드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원물·원료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용암해수 활용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TP 관계자는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들이 해수담수화시설, 미네랄 가공장비, 제품(음료 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OEM(주문자위탁생산) 지원과 동시에 수질 분석,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용암해수 활용기술과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전문 연구인력 확충을 통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용암해수 특성 연구를 통한 기업·산업역량 극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유가 상승세 한 풀 꺾였지만… 12일 제주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에 1489원, 경유 1ℓ에 1689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가격은 1년 6개월만의 최저 수준이다. 강희만기자

JDC와 함께하는 NIE사업 "잘하고 있다"

본보, NIE 등 사업 효과 설문조사 결과
"인재양성에 긍정적 역할… 지속 추진을"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진행하고 있는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와 올해 첫선을 보인 '미디어 체험 데이'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잘하고 있다"며 호응을 보냈다. 또 NIE 사업이 교육적 효과는 물론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사업의 지속 추진이 요구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2 JDC와 함께하는 미디어 체험 데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학생·학부모 60명) 결과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보와 JDC가 올해 운영한 NIE 사업(지면연재, 공모전)과 '미디어 체험 데이' 사업의 효과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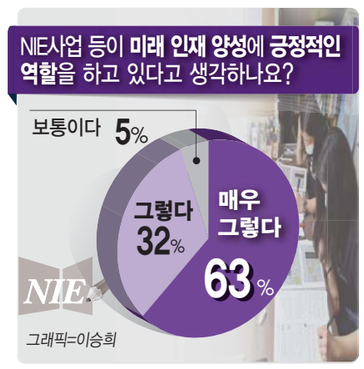
조사결과 NIE 사업과 미디어 체험데이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96%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60%, '잘하고 있다' 36%)'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5%가 'NIE 사업 등이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32%)'고 답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NIE가 학교 현장에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96%('매우 그렇다' 68%, '그렇다' 28%)였다.

아울러 'NIE 사업 지원 등 JDC의 미래 인재 양성 노력이 JDC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9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5%, '그렇다' 30%)'고 응답했다.

NIE 사업 중 더욱 확대·보완해야할 사업 1순위로는 '미디어 체험 데이'(응답률 45%)가 꼽혔고, 이어 NIE 공모전(39%), 신문연재(13%) 순으로 나타났다. 오은지기자



강한 바람과 함께 본격 겨울 추위

오늘 밤부터 바람 강해져… 14일 비나 눈 예보

12월 셋째 주 제주지역은 추위와 함께 눈 소식 등이 예보돼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부터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13일 밤부터는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며 곳에 따라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에는 최대 초속 25m의 바람이 불며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다.

또 이날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14일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3~4℃, 낮 최고 기온은 6~8℃로 예보됐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새벽부터는 서해상에서 찬 대기와 따뜻한 해수면의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산지에는 눈이 내리고 중산간 이하 지역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5㎜ 내외, 산지 이외 지역은 5㎜ 미만으로 예상되며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2~7㎝, 산지 이외 지역은 1~3㎝ 정도로 예보됐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잠정집계 12일 <17시 기준> 신규 283 누적 35만4292

시국 선언문

이태원 참사로 무고한 국민들 158명이 죽음을 당하여 온 나라가 슬픔과 한숨, 그리고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은 총체적 부실상태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온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9일 오전 9시 병원으로부터 희귀성 난치암 말기 선고를 받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투병중인 제주도의 진보인사에게 가한 압수수색은 국정원과 경찰의 비인간적인 민낯을 드러 냈으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무려 16시간 동안의 패륜적인 압수수색을 국가정보원과 경찰관 수 십명이 달려들어 군사작전 하듯이 감행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상식과 인권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이제 완전 폐지해여 합니다. 희대의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국가폭력에 경악을 금치못할 지경이며, 상식과 인권,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이때에 사문화된 악법을 앞세워 저질러진 만행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반민주적 국가폭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UN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수 십년동안 폐지 혹은 전면 개정을 공식 요구해 왔고, 국민들의 의견도 이미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나아가느냐, 다시금 암울한 반민주 반인권 독재국가로 떨어지느냐는 절체 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데 공동의 인식을 같이하는 도민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2월 10일을 맞이하여, 각계 각층의 제주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입장을 발표합니다.

1. 제주도민에게 가하는 패륜적인 공안탄압 국가폭력을 당장 중단하라!
2.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3. 윤석열정부는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6.15남측위 제주본부, 강정마을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노동당 제주도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본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제주지부,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성산읍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풀무질,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진보당 어디가맨분회, 진보당제주여성엄마당,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강경범 강경식 강귀형 강금옥 강남운 강농여 강대성 강대준 강동균 강동률 강동안 강동원 강만수 강명자 강명훈 강문관 강문신 강미경 강미선 강미애 강민경 강민선 강민선 강민숙 강민우 강민혜 강보라 강봉우 강봉준 강봉준 강서영 강서윤 강석대 강선영 강성길 강성북 강성실 강성주 강성준 강성진 강성진 강세일 강수영 강순선 강승규 강승규 강승훈 강여성 강여심 강영민 강영선 강영선 강영숙 강예슬 강예주 강욱미 강욱순 강우성 강원보 강은실 강은영 강은정 강은호 강인봉 강재훈 강정근 강정애 강정연 강정열 강종우 강종원 강지오 강지윤 강지율 강지호 강진숙 강찬주 강창욱 강태식 강태식 강태종 강현애 강현자 강혜정 강호진 고경대 고경자 고경하 고경희 고광덕 고광성 고광호 고권섭 고권수 고권일 고규라 고기련 고길천 고다현 고대봉 고동연 고동주 고동환 고명철 고명표 고명희 고민정 고병수 고복정 고봉희 고부건 고성미 고성환 고성희 고승민 고승완 고영미 고영은 고영주 고예선 고옥자 고용규 고용준 고용호 고원하 고윤호 고은하 고은희 고을선 고인덕 고재혁 고정아 고준혁 고지영 고진숙 고진영 고찬영 고창건 고창덕 고태병 고태윤 고한백 고혜영 고 훈 고희경 고희경 고희숙 공승권 곽예린 곽은하 권문식 기재현 김강석 김경돈 김경록 김경미 김경석 김경준 김경찬 김경훈 김관홍 김국남 김규중 김기홍 김기홍 김남숙 김남훈 김대중 김대호 김도연 김동오 김동옥 김동제 김동흡 김두옥 김두형 김미리아 김민호 김말순 김명식 김명실 김명호 김명화 김명희 김문수 김미랑 김미영 김미영 김미정 김 민 김민주 김민철 김민호 김병삼 김병철 김보근 김복선 김복희 김상용 김상현 김상훈 김상희 김새봄 김석구 김성계 김성규 김성대 김성룡 김성일 김성진 김성진 김성한 김수길 김수미 김수민 김수현 김 숙 김순애 김순희 김승규 김승범 김승철 김승현 김안나 김안실 김양조 김연희 김영근 김영남 김영란 김영주 김영수 김영순 김영식 김영욱 김영준 김영태 김옥림 김용기 김우람 김유미 김유미 김윤천 김은경 김은정 김은희 김인경 김인순 김일중 김장택 김재동 김재후 김정열 김정영 김정선 김정숙 김정순 김정영 김정환 김종환 김주희 김준형 김지란 김지환 김지희 김지희 김진관 김진철 김진한 김진희 김창규 김창남 김창명 김창수 김창준 김채연 김채은 김철현 김춘옥 김충희 김태은 김태형 김태희 김택진 김평선 김필환 김하람 김학구 김학충 김해솔 김향남 김현서 김현재 김현정 김현주 김형미 김형선 김형순 김형진 김혜경 김혜란 김호영 김호진 김홍선 김화순 김효신 김효철 김희정 김희정 김희종 두정학 라완자 문경미 문경선 문보미 문성권 문영란 문정용 문하늘 문혜진 민상원 박경희 박기숙 박명숙 박미영 박민선 박병용 박선영 박수영 박영희 박외순 박인수 박인숙 박정미 박준범 박지연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찬식 박창우 박태관 박태환 박현숙 박현우 박홍삼 방은미 방하솔린 배기철 배현덕 백경호 백관철 변재구 부경미 부경주 부석희 부윤삼 부진희 부하영 서상철 설성관 성안일 성용탁 성의준 성정훈 성지은 송경아 송기남 송대수 송동엽 송문철 송미자 송성지 송수정 송승민 송승헌 송용혁 송이철 송인섭 송종배 송춘진 송현주 신강협 신봉상 신영자 신은순 안봉수 안석범 안창훈 양경화 양연준 양영수 양용호 양용호 양윤란 양은모 양은실 양인숙 양정혜 양주량 양창권 양혜린 양희선 양희정 양희주 엄문희 영영은 오갑부 오광석 오광식 오남두 오명환 오상문 오상원 오상은 오상진 오성주 오세운 오순영 오승호 오안자 오윤태 오은주 오인자 오재훈 오정매 오정심 오종수 오지은 오지혜 오창민 오창현 오춘자 오태윤 오혜찬 원윤정 유성찬 유승민 유양희 유은지 유재용 유혜경 윤경미 윤보경 윤세영 윤영현 윤은숙 윤재희 윤종호 윤지영 윤지의 윤철수 은종복 이경호 이기영 이문구 이미라 이미영 이미화 이민우 이복선 이봉자 이상봉 이상영 이상현 이상호 이선무 이선영 이소라 이소영 이소진 이수영 이승택 이승현 이안숙 이여진 이연심 이연희 이영일 이영철 이용석 이용석 이윤영 이은복 이은화 이인숙 이재용 이정원 이제우 이종훈 이지영 이지은 이 진 이진영 이진희 이창희 이천수 이충선 이충훈 이태신 이호원 임남호 임대한 임영찬 임은지 임정현 임종준 임지현 임철남 임형선 장문실 장봉수 장수영 장하영 장해진 전미라 전순자 전우홍 전희경 정근우 정근혁 정나연 정루빈 정선희 정연옥 정은숙 정재욱 정진학 정태문 정평만 정하윤 정현심 정호범 정홍택 정화숙 조경희 조민철 조성숙 조시현 조시현 조영재 좌경애 좌경훈 좌광일 좌기봉 좌기철 좌정헌 주은희 주현주 진만덕 진성호 진소라 진영림 진영종 차숙자 차윤미 채명호 채상만 채혜경 채호진 최경화 최범수 최병근 최선아 최선희 최성희 최은남 최인순 최현숙 최희영 하채란 한경례 한나산 한아영 한예분 한윤미 한은경 한인태 한정선 한정숙 함수숙 허은숙 허재경 허정순 허진호 허태준 현동관 현맹수 현민철 현복순 현선진 현성미 현순미 현순용 현승훈 현은정 현익수 현진희 현창석 현충국 현호성 홍경남 홍광익 홍기생 홍기홍 홍길수 홍리리 홍민서 홍성우 홍성진 홍수미 홍숙자 홍승표 홍죽희 홍지원 홍진서 홍창숙 홍현주 홍형심 황권영 황영미 황용운 황현호